



글쓰기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글을 쓰라고 부채질하는 감정이 없다면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오겠는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나 미쳐버릴 듯한 분노와 마산가 찌로 숨이 멎을 듯 찡오르는 경외심도 글쓰기의 발로다. 끔찍한 사건이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글로 남기고 싶은 열망에 불탄다. 다양한 감정에서 탄생한 글을 프랑스에서는 ‘크리 드 쿠어’ 라고 부르는데, ‘진심 어린 호소’ 라는 뜻이다. 월라 캐더의 유명한 말이 있다. “작가가 되는 건 쉽다. 정맥을 그어 페이지마다 피를 쏟으면 된다.”

많은 사람이 강렬한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만큼 영양력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기술은 부족하다. 작가는 글쓰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격렬한 내면의 목소리가 입을 연다 해도 지나치게 감상적인 언어만 쏟아내기 쉽다. 그렇다고 기술이 전부는 아니다. 기술과 함께 진실한 감정이 필요하다. 강렬한 글에는 금모래를 뿌려놓은 듯 글 전반에 반짝이는 디테일, 독자가 무릎을 치게 만드는 놀라움, 더없이 적절한 은유, 빈틈없는 사설력이 필요하다. 글의 어조와 리듬은 교양곡처럼 변화무쌍해야 한다. 최고의 글은 독자의 호감을 바꿔놓는다.

글을 쓰려면 대담해져야 한다. 작가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아니면 최소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글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스승처럼 신뢰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자근자근 주장을 전개하다가 불연속 의식이 날아올라서 시적 감응이나 개인적인 공상의 날갯짓에 위말릴 때가 있다. 그런 충동을 애써 막을 필요는 없다. 너무 글에만 빠져 있다 보면 ‘판생각’은 무시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알고 보면 그 ‘판생각’이 금광일 때가 많다. 진짜 판생각은 나중에 골라내면 된다.

메리 파이퍼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에서 발췌

## 제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월례회-

ZOOM Meeting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Pacific time zone 5:00 pm  
Eastern time zone 8:00 pm  
Hawaii time zone 2:00 pm

-동네방 모임-

매달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  
(작품 압평, 친목 도모, 문법수업 등)

벨리방 - 김와진/이리나 athrina0314@gmail.com  
엘에이방-여준영/신예원 sokamike@hotmail.com  
오렌지방-성민익/이익숙 janelyu36@gmail.com  
온동네방-박진익/김민정 jinheepgh@gmail.com  
토렌스방-김카니/최근자 apoconnie@yahoo.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76호

# 퓨전수필

2022 WINTER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협회장 에세이  
초대명사 신년사

범 내려온다 / 이현숙  
쉽표는 아름다운가 / 유혜자

회원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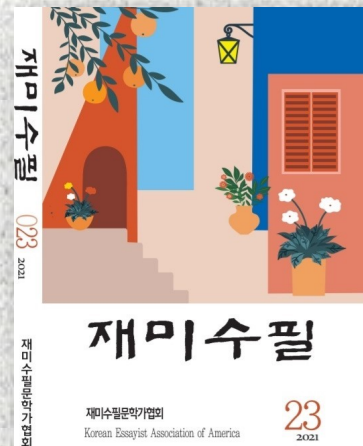
누가 울어? / 김화진  
바람 부는 날 무릎을 꿇다 / 정찬열  
나도 시어머니 한번 되고 싶다 / 김카니  
BTS vs 비틀즈 / 박진희  
흐르는 강물처럼 / 이희숙  
'3프랑 38라펜'의 비밀 / 이종운

제16회 신인상 회원 수필

파비안의 꿈 / 임선주

회원 신간소개  
공부합시다

김영교 <물처럼 바람처럼>  
반추상(半抽象) 수필 / 윤재천 수필가 《현대수필》발행인



2021년 '재미수필' 제 23집 출간

<재미수필 제 23집>

회원 44명 작품 수록

자유제 62편 / 특집 -엘에이 폭동 8편 /

테마-여행 18편

제8회 재미수필문학상 수상작 1편

제16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434 페이지

구매 연락처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외장 이연숙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수궁가의 한 대목이다. 용왕님의 명을 받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육지에 왔다. 자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兔) 선생’을 부른다는 게 발음이 헛나와 ‘호(虎) 선생’이라 불렀다. 그러자 산속에서 호랑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다. 이날치라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뭉친 밴드가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해서 불렀다. 패랭이, 색동 한복, 원색 정장에다 조선 시대 장군의 투구를 걸치고 으르렁 뛰어다니는 범을 표현하는 춤을 추었다. 해학과 풍자적 비유로 외국인들까지 따라 하는 열풍을 일으켜 온라인에서 3억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한국 홍보에 사용되며 세계를 흔들었다.

2022년은 흑호(黑虎. 검은 호랑이)의 해다. 범이 365일을 우리 앞에 물고 왔다. 산군(山君)이라 불리는 호랑이는 동물과 천하를 호령하는 영물로 권위, 명예를 상징하며 모험과 투쟁을 의미한다. 단군신화를 시작으로 설화와 속담 그리고 전래동화 안에 호랑이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한국의 대표하마스코트가 될 정도로 친근한 동물이다.

얼마 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한국호랑이 사육장에서 연년생으로 태어난 호랑이 7남매의 성장에 대한 뉴스를 봤다. 사육사는 작년에 태어난 오동이 남매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문에 호랑이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왕(王)’자 외에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고유의 줄무늬를 갖고 있기에 알 수 있다고 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

는 안에 있다.’라는 글이 떠올랐다. 동물은 생존에 따른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무늬는 곁에서 느껴지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의 연륜과 환경에 따라 혹은 시시각각 상황에 변화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작가는 마음 안에 있는 줄무늬로 글을 쓴다고 생각한다. 같은 소재와 주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백지 위에 풀어낸 것을 읽으면 각자의 개성이 나타난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퓨전수필에 ‘행시란’이 있다. 같은 시제인데도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풀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단어를 어디서 찾아냈지.’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낸 고민의 결정체다.

나의 가치와 개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 녹여냈을 때 오히려 공감을 불러오는 작품이 태어날 것이다. ‘다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미처 해 보지 못한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하는 것이 작가의 숙명이 아닐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온전히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야 글도 온전히 독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호랑이의 줄무늬처럼.

2022년은 용맹하고 거침없는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생기와 활력으로 넘치는 마음 자세로 그동안의 움츠림을 털어냈으면 좋겠다. 산을 뛰어 내려오는 범처럼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듯’ 당당하게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개성 있는 작품으로 본인의 무늬를 그렸으면 한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 임표는 아름다운가

### 유예자 수필가



초등학교 시절, 지구상에서 살고 싶은 나라를 적어 내라고 했던 때가 생각난다. 6. 25 전쟁을 겪은 터라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친구, 몇

쟁이 나라 프랑스와 신사의 나라인 영국 등 몇 나라가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린 마음에도 미군이 전쟁에 함께 해준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문화 연필이 나오지 않았을 때여서 레이선 박스나 구호물품으로 나온 지우개 달린 미제 노란 연필(아마 낙타표?)이 너무 좋아서 미국을 동경했던 아이도 많았던 것 같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불가능한 모든 것이 동경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때는 해외 이민이 우리와 이웃의 미래와 이어진다는 생각은 못 했었다. 그 시절 같은 반이었던 경자가 하와이로 이민 간 것이 1970년대 후반이었고, 얼마 후 셋째 동생도 뉴욕으로 떠나자 동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뜻이 있어도 용감하지 않으면 동경의 세계로 첫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 자기만의 신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능력자임을 서너 번의 미국 방문에서 만난 성공한 분들에게서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몇 년 전에 참가했던 미주 문학캠프의 개회식에서 국가 제창 순서에서 우리 국민이라고 여겼

던 문우들이 “O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로 시작되는 미국 국가를 힘차게 부를 때, 나는 잠깐 놀랐다가 눈물이 솟았었다. 고달프고 외롭던 어찌면 고해 같은 이민생활 속에서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 되었고, 또 문학을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고국에서는 문학이 현대문명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추세인데 악조건을 물리치고 금지를 갖게 한 문학의 힘을 오히려 미국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문학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생각하던 내게 일제강점기에도 탄압을 받으며 이어졌고 광복 이후의 비바람 속에서도 발전해 온 문학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얼마나 빈곤하고 황량했을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 아름다움을 일깨워주었고 삶이 덧없고 권태로운 것이라는 생각과 맞서 싸울 용기도 불러일으켜주었던 문학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일었다.

첫 번째 엘에이 갔을 때 K 선생님의 안내로 산 페드로 항구가 있는 바닷가 언덕 위에 미국독립 200주년을 맞이하여 1976년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축하의 메시지로 건설한 엄청난게 큰 범종 ‘우정의 종’을 보았었다. 매해 12월 31일 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주최로 제야의 종을 타 종한다고 했다. 서울의 보신각 타종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해의 다짐도 하는 상징적인 것인데, ‘우정의 종’은 엘에이에 사는 한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그 종소리를 듣는 동포들만이라도 그 시간엔 새해의 각오와 함께 고국사랑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문학이 무엇이고 왜 문학을 하는가 원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때이다. 꼭 문학이 필요하냐고 묻기보다 어떤 것이 좋은 작품이고 좋은 작품을 쓸 실력만은 갖추고 있어야 하리라.

눈과 귀가 밝은 지적 통찰력으로 언제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문학지도 강사가 주말에 그림 전시회에 문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속제도 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림들을 보고 수필 한편을 써왔다고 자랑했다. 작가라면 언제 어디서나 느낄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호랑이 그림을 보면 움츠리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고도 한다. '나의 문학은 휴업 중'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첩표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 충남 논산시 강경읍출생,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출신. 월간『수필문학』(1972)으로 등단. MBC라디오 PD, 방송위원회심의회위원.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역임. 수필집 『꿈의 위로』등 11권. 음악에세이 『음악의 페르마타』등 6권. 한국문학상, 한국펜문학상, 조경희문학상, 윤재천문학상, 청하문학상, 원종린수필문학상 외 다수 수상. 현 격월간 『그린에세이』 편집인

## 1월

오 세영 시인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신(神)의 캔버스,  
산도 희고 강물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게다.  
아직 트이지 않은  
신(神)의 발성법(發聲法).  
가지 끝에서 뚝 끊 끝에서  
내 영혼의 현(絃)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년의 꿈 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났단다.  
아, 1월은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 누가 울어?

김와진



마음이 아프다. 언제였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온 지구를 휩쓸고 나서부터 언니가 머물고 있는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 년이 지나고 두 달 동안은 만나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큰언니가 벌써 보고 싶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 알아볼 수 없었어도 눈웃음으로 대꾸를 삼았던 언니를 그냥 떠나보내야 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녔다. 팔십 나이가 되면서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언니가 결국엔 통제된 병실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 집 네 자매 중 큰딸로 막내인 나보다 열두 살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해방과 육이오 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부터 격변의 시기를 살아낸 세대였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언니는 S 대 미술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 딸에게 미술을 전공하게 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을 터인데 부모님의 넉넉한 마음이 감사하다. 아들 없이 네 딸만을 키우던 부모님은 비교적 깨인 생각을 가지셨나 보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네 자매 모두의 대학교육까지 온 힘을 쏟으셨으니 말이다. 큰언니는 어린 내 눈에 항상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 독서 시간을 많이 가졌고 간간이 영어 잡지인 <TIME> < NATIONAL GEOGRAPHIC MAGAZINE>을 사전을 찾아가며 읽곤 했다. 덕분에 나는 일찍부터 천연색 사진을 보며 우리나라와 다

른 세계의 풍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다. 이처럼 큰언니는 내게 늘 롤 모델이었다. 부모님께는 아들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딸만 넷을 키우던 부모님은 모든 가정사를 큰언니와 함께 운영하셨던 것 같다. 우리 세 동생도 방향을 잡고 잘 따르며 살아왔다. 언제나 재잘거리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웃음이 그치지 않는 집안 분위기였던 기억이 있다. 쉰넷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 큰언니에게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 언니가 떠난 뒤의 내 마음이 이리도 허탈하다.

난 많이 울었다. 언니를 땅속에 묻으며 한 줌의 흙을 뿌렸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언니가 이젠 평안히 쉼을 갖도록 기도했다. 아마도 82년 전 언니도 엄마의 태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큰 소리로 울었으리라. 그 울음 속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염려도 담겨있었을까. 언니가 남겨놓은 예쁜 딸과 두 아들도 엄마와의 이별을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그토록 사랑으로 보듬어 키운 자식들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떠났으리.

오늘도 많은 새 생명이 큰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온다. 주인공은 낯선 세상에 떨어져 홀로 울고 있는데 그를 맞이하는 산 이들은 더없이 기뻐하며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 언젠가 마지막 날 떠나는 자리에선 사랑했고 또 사랑받던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겠지. 어찌면 맞을 때의 그 웃음과 떠나보낼 때의 눈물은 똑같은 마음의 편지일 듯싶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지금, 누가 울어?



## 바람 부는 날 무릎을 꿇다

정찬열



어느 해 늦은 봄, 바람이 제법 불던 아침나절, 백담사에 들렀다. 도보 국토횡단 중이었다. 다리를 건너 경내에 들어섰다. 만해 선생 흉상 앞에 한참 서 있는데 어디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날렵하게 치켜 올라간 처마 끝 작은 종이 댕그렁댕그렁... 풍경소리로 길손을 반겨주었다. 풍경은 어느 쪽 바람인가를 시비하지 않고 센 바람 여린 바람을 가리지 않는다. 온 힘 다해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나도 온몸 열어 받았다.

법당에 들어섰다. 자비로운 미소로 맞아주시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줄기 바람이 촛불을 가볍게 흔든다. 중생들이, 제각각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불상 앞에 쫓그려 앉아있다. 풍경소리가 그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간다. 땀내 나는 등을 토닥거리며 건너가시는 종소리를 나도 한 마리 짐승이 되어 다소곳이 받아 모셨다.

그날도 바람이 불었다. 스페인 산티아고 2천 리 순례길을 걸어가던 중이었다. 멀리 성당이 보였다. 초라하고 낡은 다 삭아 쓰러져 가는 오래된 작은 건물이었다. 지친 다리를 끌며 빼격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에 문짝이 덜컹거렸다. 내 지나온 날들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어려웠던 구비구비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가 보였다. 가여운 녀석.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숨죽이며 한참을 울었다.

그때 어디서 가느다랗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울음을 삼키며 우는소리였다. 가만히 귀 기울여보니, 내 울음소리와 닮았다. 오래전 내 아들이 골방에서 혼자 흐느끼며 울던 날, 아비인 나도 저렇게 숨죽이며 따라 울었던 적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귀 기울여보니 옛날 옛적 우리 아버지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느님 우리 하느님, 여기까지 따라와 저를 위해 울어주시다니요.

오늘, 태평양 바라보이는 언덕에 서서 바람을 맞는다.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아차 하면 날려갈 것만 같다. 바람 앞에 인간은 바람이 된다. 바닷속의 모든 것이 바닷물에 덮여 바다가 되듯 바람 속의 만물은 바람이 되어 펄럭인다. 깃발이 되어 일어선다.

이 바람은 태평양 건너 내 조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바람결에 교회당의 맑은 종소리가 실려 있고 뚝뚝 산사의 북소리도 울려온다. 저 바람 속에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어있다. 피비린내가 묻어있고 분노가 서려 있다. 바람 따라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바람 타고 넘어오고 있다.

파도가 밀려온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날을 세우고 달려온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며 수만 리 길을 달려온 파도. 백사장 위에 철석 몸을 부려 거품으로 사라진다. 거품. 흔적도 없이 서서히 스며드는 거품을 가만히 바라본다. 저만치 장의차 행렬이 지나간다.

바람이 거세다. 백담사 풍경소리가 들려온다. 산티아고 길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 나도 시어머니 한번 되고 싶다 / 김카니



집안일은 끝이 없다. 딸애가 조산하는 바람에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불려 와 오늘도 쉼 없이 일을 한다. 약속했던 산후조리사는 한 달 후에나 딸 집으로 오게 돼 있어

서 아직 어린 두 손자와 딸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왔다. 나의 친정엄마가 그랬듯 딸만 있는 나는 언제나 불려와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도 돕는다.

이번에도 사위 음식, 두 손자의 각각 다른 입맛에 맞는 국, 입원해 있는 딸의 미역국에 반찬 등 허리가 휜다. 혼자서 간단하게 해 먹었는데 온종일 서서 종종걸음을 친다. 내가 큰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해 지금도 가끔 뺨속이 쑤시는 고통을 겪는다. 그 아픔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한다. 삼일 밤을 고생하며 겨우 수술로 낳은 셋째는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선다.

오늘 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장미꽃을 한 아름 사 왔다. 대~여섯 다즌은 되어 보였다.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일을 하나 더 보탬 셈이다. 꽃시장에서 바로 사 와서 다듬어지지 않은 장미 가시에 엄지손가락을 찔려 핏방울이 한 방울 맺혔다. 꽃말은 행복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꽃꽂이하는 내내 가시와의 싸움에서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눈치 빠른 사돈이 열심히 가시를 떼어내긴 하지만 별로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돈과 나는 같은 여자인데 왜 처지가 다를까. 첫 손자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딸의 시댁 식구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나는 그들의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했다. 이번 셋째도 역시나 부엌에는 내가 서 있다. 심술이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접었다.

오래전 내 시어머니와 똑같아 보였기 때문일까. 시어머니도 모처럼 아들 집에 오면 언제나 손거울을 보면서 분첩이나 두드리고 계셨다. 반면에 친정엄마는 오실 때마다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내 뒷바라지에 바쁘셨다. 사위 생일에 오셔서 김치부터 전이며 잡채 등 한 상 푸짐하게 차려주면, 시댁 식구들은 맛있게 먹고 음식까지 싸갔다. 나도 딸 집에 가면 사위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게 된다. 여자의 삶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대물림되는가 보다. 당연히 받아들였던 일이 오늘은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얼마 전 옆집 스테파니 엄마도 한국에서 딸 보러 와서는 그날부터 집안일에, 육아에 시달리며 차 마시는 시간도 없다고 푸념을 했다. 맛벌이 부부인 딸이 안타까워 일 년에 두어 번씩 다녀가는 데 이번에는 몸이 아픈 데가 많아 힘들단다. 요즘은 한국에선 유행어가 딸 어미는 부엌에서 서서 일하다 죽는다고 해서 동갑내기인 그녀와 소리 내 웃었다.

똑같이 자식을 나눠 결혼시켰는데 왜 친정엄마만 유독 부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딸의 부엌에서 동분서주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넓은 잔디 위에서 '나이 탓

‘을 외치며 공을 치고 있겠지. 사람들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첨단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속의 관습은 과거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가. 친정엄마의 탈출구는 영원히 없는지 궁금하다.

딸만 둘 있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가끔은 시어머니의 권위가 부럽다.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딸애는 세 아들의 어머니가 당연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위안으로 삼으며 딸이 먹을 미역국을 끓인다.

친정엄마는 속에다가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산다.  
딸의 엄마는 그렇다.



### [글속에서 좋은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 구무숙의 <숨 쉬는 양아리> 원제: 숨

평소 나는 ‘숨 쉬는 양아리’ 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무사한 양아리들이 땅의 진동을 이겨낸 흙과 불의 양아리로 여겨지며 고마운 마음이 인다……양아리를 보고 돌아서는 나의 숨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해진다. 들숨, 날숨, 날숨, 들숨.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숨을 길게 내어 쉴 때 몸과 마음의 긴장이 녹는다.

#### 전용익의 <세상이 문득 숨을 멈췄다> 원제: 카르페 디엠

돌아서려는 나를 여자의 친근한 표정이 붙잡아준다. 곧 여자와 나의 시선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시간이 잠깐 지나는 동안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문득 숨을 죽였다는 생각과 동시에 피자 가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제서 여자와 나는 시선을 거두고 목례를 나눈다.

#### 김문자의 <라이프 타임> 원제: 전시회를 다녀와서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나는 지금 겨울에 들어서 있을 것이다. 사계절은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내 라이프 타임의 연재 위치는 내가 선택한 자리는 아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져다주는 자리. 거기에 수동적으로 떠밀려 연재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으리라.

## BTS vs 비틀즈 / 박진영



영어가 귀에 조금씩 들어 오던 십 대 후반에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는 단연 최고였다. 어느 남자와 손을 잡는 상상만으로 한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던 시절을 어떻게 잊을까. 단정하고 정겨운 영국 남자들이 눈에 들어온 건 당연한 일이고 음악도 얼마나 신선하던지. 풋사랑에 마음 아파하면서 <Yesterday> <Let it be>를 들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십 대 초반을 보냈다. 미디어를 가까이할 수 있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비틀즈의 노래는 나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의 청춘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막내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던 미국 백인 여학생에게 Home Coming 파티에 파트너로 초대받아 집안이 들썩거렸다. 그녀가 BTS를 좋아한다며 눈에 익은 한국 남자 학생에게 다가온 것이다. 파티 사진을 보니 철없는 아들은 쑥스러워 멀찌감치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여, 대담하게 드레스를 입은 그녀에게 실망스러운 시간을 준 거 같아 미안스러웠다. 그게 벌써 4년 전인가. 난 그때 처음 BTS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유튜브에서 본 그들은 춤을 무척 잘 추고 귀여워 보였지만 노랫말이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우선 비트가 빠르고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집중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여유와 관심이 없었다면 변명이었을까.

열여섯 살의 존 레논이 열네 살의 폴 매카트니를 만나 자작곡들을 만들면서 시작된 비틀즈. 그 후 몇 년 뒤인 1964년 미국 TV에 데뷔한 후,

세상은 달라졌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비틀 매니아 (Beatle Mania)'가 되어 소리를 지르다 기절하고 공연을 보기 위해 밤을 새워 표를 구하는 일이 생겼다. 그들의 공식적인 공연은 1966년까지였지만 빌보드에 21곡이 올랐다. 여전히 세계인의 애창곡으로 불리며 가끔씩 공연을 하고 있는 거의 80살에 가까운 폴 매카트니 때문인지 그들의 인기는 여전하다.

십 대 중반의 RM과 정국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방탄소년단'은 4년이 지난 후 <쩔어>에 외국인들이 크나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5억 뷰를 돌파하며 2015년부터 '21세기의 비틀즈'로 일컫기 시작했다. 2017년에 <DNA>를 시작으로 <다이나마이트> <라이프 고즈 온>등이 있고, 마침내 2021 <Butter>가 빌보드 1위에 몇 주간 오르며 그래미상 후보에도 올랐다. 멤버들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만든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 노래와 일곱 명의 개성적이며 중성적인 용모의 귀여운 소년들의 칼 군무가 큰 매력이었을까. 세계 젊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아미 (Army)'를 이루게 되어 예전의 '비틀 매니아'를 재현한다. 그보다 더욱 나아가 팝 역사를 바꾸었다. 문화적 핸디캡으로 알고 있던,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노랫말을 수천만 아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서울대에서 미학을 전공한 방시혁은 처음엔 작곡자로, 작곡과 노래를 하던 박진영과 함께 일했다. 얼마 후 독립해서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세워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같은 예전의 발

라드와 결별하고 활짝 열린 감각으로 방탄소년단의 곡에 전념한다.

<I need U>를 시작으로 <피 땀 눈물>등을 다른 멤버들과 합작해서 힙합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변화시켜 최고 버전으로 탄생시킨다. 그는 청년기에 ‘듀란 듀란’ 영국 록 밴드의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멤버들에게 매료되었다고 한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전체 음악이 요구되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급변하는 세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메시지와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갖춘 그룹을 만들어낸 그의 천재성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들이 무대에서 뿐 아니라 개인 생활을 보여주며 아미들과 소통하는 자유를 허용한 그는 역시 한 수 위란 생각이 든다.

‘방탄소년단 (BTS)’은 “방탄이 총알을 받아내듯 우리의 음악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영어로 ‘Bullet proof Boy Scout’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얼마 전 제임스 코든은 Crosswalk 콘서트에서 그들을 “Brilliant, Tremendous, Sensational (BTS)” 그리고 “Big Time Singers (BTS)”로 칭했다. 그들이 나온 각종 인터뷰, 유엔 스피치, 공연, 예능 프로, 음악회엔 수천수억의 조회 수를 기록한다.

나도 그들의 공연과 음악을 보기 시작해서 이젠 얼굴만 봐도 누구인지 구별이 된다. 처음엔 Rap과 영어를 잘하던 RM이 다른 청년들과 구별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미술의 독특한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다. 슈가는 표정이 없는 듯 보이나 작곡에 능하며 미국 인터뷰에서도 한국어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롭다. 제이홉은 안무를 주로 맡아 하며 분위기 제조기, 열은 머리색의 재민이는 귀걸이가 잘 어울리

며 귀엽고 착해 보인다. 계란형이고 잘생긴 진은 요즘 장난삼아 만든 <슈퍼 참치>로 크나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 가사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 바다’로 역사가와 정치가들도 감히 못 하던 한국의 ‘동해’로 자리매김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정국은 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남자다운 섹시함이 보이며, 뷔는 얼굴이 V 형이고 콧날이 예술이다. 그들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까닭에 처음엔 춤 연습을 10시간에서 12시간 했다고 한다. 모두가 경쟁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창조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리듬마다 한 박자마다 강력한 힘이 확실하게 전해진다. 각자의 경험과 감성으로 가사를 쓰고 비트와 리듬에 맞는 곡을 만드는 그들은 개성이 강해서 그룹의 격렬한 힘이 넘쳐난다. 모두 아직 이십 대인 그들의 음악과 춤은 흥겹고 즐거운 그 이상의 기운과 젊음이 한껏 녹아 있다. 아, 이게 빠져드는 건가!

팬데믹으로 외롭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BTS의 ‘Love Yourself’의 메시지는 존 레논의 ‘Imagine’ 이상의 위로와 평화를 전해주는가 싶다. 앞으로 동서양에 상관없이 음악으로 전해주는 이 세상의 좀 더 나은 날들을 위하여 BTS가 실어줄 오랫동안의 아름다움에 함께 하려다.





## 오르는 강물처럼 / 이익숙



먼 산이 하얗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반가운 선물을 받은 듯하다. 로스앤젤레스는 일 년 내내 따뜻하지만, 비가 오면 인근의 높은 산이 눈으로 덮이는 장관이 연출

된다. 우리는 그 하얀빛에 매료되어 눈을 찾아 떠난다. 연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 요세미티 계곡을 향해 운전한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바람에 달혀 있던 가슴이 상쾌하게 열린다. 한 해의 끝 자락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로 화해하며 마무리하고, 새 계획을 백지 위에 그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곧은 고속도로를 지나 좁은 길로 들어선다. 인생 여정이 곧은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속에 또한 좁은 길이 있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뿐 꼬불꼬불 돌아가는 산길 때문에 어지럽고 멀미가 나려고 한다. '일 년이 이렇게 힘든 여정이었나.' 지나간 일 년을 회상한다.

이민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간이 있었다. 앞만 보고 달렸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마치 산에 오르는 도전과 같았다. 낯선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고자 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벅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강하게 견디었다. 약한 부분이 강함이 되어 최선을 다하려 했다. 그런 과정의 고비를 지나며 무리하게 파생된 부작용은 없었는가를 되짚어본다. 그때그때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놓치거나 적당히 처리한 것은 없었을까? 마치 멀미를 막기 위해 약만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취

된 결과만을 보려 했던 뒷모습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돌아본다.

잊지 못할 산이 떠오른다. 몇 년 전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할 때다. 멀리 설산이 신비로운 빛으로 다가왔다. 고고하게 흰 자태를 드러내는 마운틴 쿡(Mountain Cook, 아오라키)은 3,724m 높이로 뻗어난 비경을 자아냈다. '아오라키'는 '구름을 뚫은 산'이란 뜻이다. 빙하로 덮인 산봉우리 중 최고봉이 마운틴 쿡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반사하는 햇빛에 어우러져 황홀함을 더했다. 바로 뉴질랜드 최고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 경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전에 등반 훈련을 했던 산이었다.

힐러리경은 1953년 33세의 나이에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정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에 몸이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 등반을 시작했다고 했다. 뉴질랜드의 5달러 지폐에 아오라키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길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마운틴 쿡은 모든 등산가에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었던 산이었기에 나는 그때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구름을 뚫은 산'의 기상을 나도 품고 싶었다.

마운틴 쿡과 강물의 동행은 그림 같은 풍광을 빚어냈다. 눈 덮인 산들이 병풍을 두른 산꼭대기에 햇별이 쏟아졌다. 빙하가 녹아내린 옥색 물은 광물 가루의 산란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그 오묘한 색채는 에메랄드빛 물감을 화폭에 칠한 듯 고왔다. 강물 따라 내 마음도 여유롭게 흘러가다가 그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연어가 뛰어노는 것이 아닌가. 어린 연어는 차가운 강에서 자라다가 바다로 나가 성어로 자란 후 산란을

### 새해 아침의 기도 / 안도연(시인)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어깨를 낮추어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졸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어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역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쥔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잠 안 방울, 말 안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물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여기저기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 밑에 밟혀 죽는 작은 벌레와 풀잎이 있다는 것을, 내 발길에 차여 구르는 돌맹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다 내 몸을 세워 주소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 아래 부조처럼 떠돌게 아저 마시고, 고요한 쫓불 하나에 마음을 단단히 기대게 하소서. 목정 높여 샷대질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뒤로 물러앉게 하시고, 가슴에 오래 남는 낮은 목소리의 사람을 앞으로 바투 다가앉게 하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애써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 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헤어져 아파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다시 사랑의 연둣빛 싹을 틔울 수 있게 하소서. 저 실업과 노숙의 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골목길의 어둠을 새해에는 물리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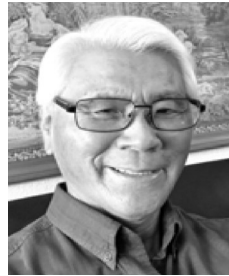
새해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입으며 평평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을 부디 오되게 꾸짖어 주소서. 그들이 통일로 가는 기관차를 가로막으려거든 크게 크게 기적을 울려 와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견도록 해주소서. 새날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발 벗고 찾아 나서야 오는 거라고, 새해에는 자신 있게 말하게 하소서. 썩은 물은 나가고, 맑은 물은 들어오게 하소서.

⇒ 위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회귀한다고 했다. 강물은 흘러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듯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새해를 맞이하며 나도 강물처럼 흘러가자고 마음을 다짐해 본다. 삶에 대한 욕구를 강물에 흘

려보내며 조인 고삐를 늦추어 보자. 좁고 굽은 길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속도를 늦추기도 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속도가 아닌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제 은퇴의 여유를 갖는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거대한 흐름에 맡겨본다.

# ‘3프랑 38라펜’ 의 비밀 / 이종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들어 서면 스위스가 더욱더 그림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 때문도, 늦둥이 외아들의 유년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랑나우’ 마을 때문만도 아니다. 1980년대 초,

스위스 취리히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뜻밖에 경험한 잊지 못할 충격 때문이다.

한국 본사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 세 명과 스위스인 현지 채용 직원 등 스무 명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던 어느 오후였다. 은행에서 보내 온 월말보고서 입출금 현황을 검토하던 중 아래 쪽의 한 줄에 눈길이 쏠렸다. 입금란에 특이하게도 ‘3.38’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가지런히 줄지어 선 1,000.00단위의 균형 잡힌 라인을 완전히 파괴한 채,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3.38’이라는 작은 액수의 숫자가 유난히 돋보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영업 규모로 보아 입금액이 1,000.00단위 이상인 것이 정상인데, ‘3.38’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다. 당시의 스위스 프랑화 가치는 미국 달러의 약 80%쯤 되었으니, 3프랑 38라펜은 2달러 70센트, 한국 돈으로는 3천 원도 안 되는 액수였다.

은행 이자일까 아니면 정확하고 빈틈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스위스 은행의 실수일까. 완벽하다는 스위스 은행의 허점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본사 파견 경리 담당 직원을

불러 그 비밀을 캐기 시작했다. 담당 직원은 별 관심 없이 지나쳤는지 문제의 ‘3.38’ 이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입금되었는지 모르고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 비밀은 은행에 확인해 보고 나서야 스위스 현지인 직원 중 한 사람이 입금한 것임이 밝혀졌다.

당연히 그 직원을 불러 입금 경위를 물었다. 그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 자신이 불신이라도 당한 듯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입금증과 발송된 텔렉스 용지를 보여주면서 “금액 산출에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은 “텔렉스 수신처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글자당 전송 단가는 얼마, 타전한 글자 수는 몇 자, 그러니 ‘3프랑 38라펜’이 정확하지 않으나”라고 말했다.

내용인즉슨 그는 가족 휴가용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회사 텔렉스를 이용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 텔렉스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직원들은 직접 전신국에 가거나 회사 내 ‘SITA’라는 통신망을 이용해 휴가용 호텔 예약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나는 ‘3.38’이라는 돈이 은행 이자인지, 혹은 은행의 착오인지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마치 금액을 속여 입금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고 지레짐작하는 눈치였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큰 충격과 감동에 말을 잊지 못했다. 텔렉스 사본과 입금 영수증을 책상 위에 남겨 놓

김영교 수필집 <물처럼 바람처럼>



김영교 씨의 문학은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는 아름다운 상상력을 통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 작품 내용엔 깊이가 있고 진지함이 있고 감동이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모범적인 크리스천 문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김영교 씨의 문학은 종교적인 신앙도 독실하거나와 그가 소중히 생각하는 기독교적 주제를 세련된 문학으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홍문표 문학박사의 해설 중에서-

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멎하니 바라보았다.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자존감은 나를 괴롭혔다. 애매하게 접대 경비를 집행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접대비 등, 등 융통성 있게 회사 경비로 처리하던 관행이 '3프랑 38라펜' 사건으로 흔들렸다. 한국의 기업 정서나 전통적인 접대 문화, 공(公)과 사(私)를 칼날같이 구분하지 않는 관행이 송두리째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 이후에도 스위스 직원들은 비슷한 이유로 회사 계좌에 입금한 작은 숫자는 종종 눈에 띄었다. 그들은 회사 복사 용지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지 매수에 용지당 단가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은행에 직접 입금 처리하곤 하였다. 용지에는 아예 투명 글씨로 가격이 새겨져

있었다. 직원들로서는 하나도 이상하거나 감동을 자아낼 만한 일도 아니었다. 작은 규칙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계산과 관리 계획이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실한 스위스 국민성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

스위스에서 사는 동안,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무심코 '스위스는 자연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스위스는 역시 한사람, 한사람이 뭉치고 단결하여 만들어가는 나라'임을 재확인하였다.

스위스를 떠난 지도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온다. 송별 기념으로 받은 스위스제 커다란 워낭(소 방울)을 울려본다. 소리는 여전히 은은하고 경쾌하다. 함께 일하던 스위스인 직원들 얼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들이 몹시 보고 싶다.

## 파비안의 꿈 / 임선주



나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날이 있을까. 예쁘게 단장한 친구들이 하나, 둘 불러 나갈 때만 해도 나에게 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날도 가게에 들른 손님들은 향기를 풍풍 날리고 날렵하게 단장한 예쁜 것에만 눈길을 주었지, 화장 안 한 시골 처녀 같은 나를 거들떠보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당장 보기 좋고 색 고운 것만 골라갔다.

사할도 못 가 시드는 것을 뭐가 좋다고. 나는 샐쭉해져서 가게 문을 나서는 그들을 흘겨보았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언제까지 낙진하고 어둑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나도 남들처럼 한때일망정 사랑받아 볼 기회가 오기나 하려는지.

잔칫날 구석으로 내몰린 뒷방 마님같이 주인은 나를 어둑고 외진 곳으로 옮겨놓았다. 나는 멍멍한 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주인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아바 그룹의 ‘아이 해브 어 드림’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난 꿈이 있고 환상이 있어, 현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죠. 어둑 속을 헤치며 나아갈 길이 멀어도, 나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나는 강을 건널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다. 아, 세상에는 어두움에 묻

혀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저런 아름다운 노래도 있었구나.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어. 부풀어 오른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누군가의 따뜻한 노래 한 소절로도 캄캄한 밤을 밝힐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 별과 강, 꽃이며 이름 없는 화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저마다 존재의 가치를 뽐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나를 찾는 이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

여기, 파비안(Fabian)이라는 열대성 플랜트 있어요?

어, 나를 찾는 소리다. 그 순간 나는 호흡이 멎는 줄 알았다. 연인인 듯한 중년의 커플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주인에게 물었다.

그거 지금 없는데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 아니 내가 없다니. 나는 죽을힘을 다해 온 몸을 떨었다. 나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중년의 남자는 실망한 듯 돌아서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색색의 유혹을 건성으로 쳐다보는 듯했다. 가게 주인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없다니. 나는 울고 싶었다.

그때였다. 남자와 함께 온 여자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저예요. 제가 파비안이에요 하며 동그란 잎들을 씹 없이 흔들어 보였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던 여자가 남자를 불렀다.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더디 오는 남자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어, 여기에 있었네, 없다더니.

남자는 나를 찬찬히 훑어보며 나의 동그란 이파



리들을 하나, 둘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나의 가슴은 쿵닥쿵닥 뛰었다.

몸통이 생강 뿌리같이 우락부락한 것이 매력 있어 보이네. 잎도 싱싱하고.

매섭게 훑어보던 남자의 눈이 달맞이꽃처럼 환해졌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줄리의 법칙’이 있다더니 나의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나는 나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중년의 커플 앞에서 몽글몽글한 잎들을 활짝 펼쳐서 싱싱한 모습과 늘씬한 자태를 자랑하며 갇은 아양을 떨고 싶었다.

남자는 나를 안고 여자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노모에게 어머니날 드리지 못한 선물이라며 나를 건넸다.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보다 애는 늘 푸른 생동감으로 잔잔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드린다고 나를 소개했다. 여자의 어머니는 나를 보며 주름진 얼굴에 함지박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자는 그녀의 노모와 함께 이리저리 마땅한 자리를 찾더니 사람의 허리께까지 차는 나의 키에 맞게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 내 자리를 만들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잘 어울리는 위치였다.

남자는 스프레이 물총으로 내 잎을 일일이 쏘아가며 물을 먹여주었다. 뿌리만 물을 먹는 줄 알았지 잎도 물을 먹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나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애는 자존심이 강한 식물입니다. 제게 좀 소홀하다 싶으면 금방 제 몸을 비틀어 잎을 떨어뜨

리며 죽어버려요. 대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 동그란 잎마다 건강한 미소로 보답해 줍니다. 남자는 내 몸의 잎들을 윤이 나게 닦아주며 말했다. 그 많은 눈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는 나의 도도함이나 자존심도 헤아릴 줄 아는 분 같았다.

모든 사물에는 임자가 있기 마련인가 보다. 기다리다 보면 문득 바람을 헤집던 눈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자연계의 오묘한 섭리 같다. 가끔 이 집에 들르는 남자가 동그란 잎과 삐죽 밀치고 나온 병아리 헛바닥 같은 여린 잎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잎을 막 흔들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진다.

여자와 노모는 아침이면 동그란 잎들이 오종종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때야말로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시름시름 앓다가 잎을 하나, 둘 내려놓고 싶을 때 들었던 ‘아이 해브 어 드림’이라는 노래가 나를 살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나를 좋아하는 가족들과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도 잎마다 푸른 생기를 뿜어내야 한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지 않던가.

동쪽 창이 변해온다. 일찍 출근하는 이 집 아가씨가 잠 덜 깬 얼굴로 선머슴처럼 후다닥 계단을 내려오다 나를 발견하고 이내 표정이 밝아진다. 나는 굿모닝, 하고 손을 흔들어준다. 곧 할머니와 아주머니도 내려올 것이다. 나는 자꾸 이층 계단 쪽을 힐금거린다

## 반추상(半抽象) 수필 / 윤재현 수필가 (연대문학 발행인)



반추상 수필은 다의적(多義的)이다.

수필은 자연현상과 함께 각기 다른 삶의 실상과 그에 따른 경험을 기록할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대중화되어 있는 문학이다

수필은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이 없는 글로 인식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런 기존의 인식이 수필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수필의 내용이 작가의 삶의 모습이라는 선입견이 강함으로써 창작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필은 경험의 기록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피력일 수도 있어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넘어 다양성을 토대로 자라나야만 미래를 바라보는 수필이 된다.

다의적 수필은 그 특색이 불투명한 메시지로 독자에게 다가가지만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공자(孔子)도 '군자(君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어느 도(度)를 넘치게 되어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통로를 막아놓고 무조건 '좋은 수필'의 출현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는 성장의 동력인 DNA-유전자의 본체(本體)와의 접촉을 차

단해, 수필의 깊이와 넓이가 불어나길 기대하는 일과 같다.

수필은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며 그 형식이나 문체가 기존의 틀에서 확고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무조건 기존의 것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입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통작품에 아방가르드적 글쓰기 방법을 적용시켜 그 세계를 넓히고자 함이다.

기존 수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감성(感性)과 구상적(具象的) 소재에서 발아(發芽)된 글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어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필이 직접 경험하거나 누구나 지각(知覺)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특성을 갖춘 소재를 중심으로 화제(話題)를 전개하려고 했던 것은 작품의 중요한 객체(客體)인 독자와의 소통을 원만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을 때, 결과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과 다르지 않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다 한복판에 감금된 섬의 모습과 같게 된다.

진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선 작가는 지성과 감성, 새로운 시도를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와 자신에게 활기(活氣)를 충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며 그 반향을 관찰해야 한다. 이는 상대의 비위나 상황에 동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다가 막힌 길을 찾아 걸음을 옮기듯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반추상(半抽象) 수필이 절실하

다. 서양의 화단(畵壇)에서도 화가의 화필(畵筆)에만 의존해 순간의 영상을 기록한 시기가 있었다. 그 후, 카메라가 발명되고 대중화되면서 '그림의 시대'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 자리를 추상화가 차지해 세(勢)를 넓히면서 오늘과 같은 부흥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모든 것은 작가와 독자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지고 쇠퇴하기도 한다.

시장 물가로 볼 때, 재래시장은 발전해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이 흥성하는 반면, 백화점 같은 비교적 물건값이 비싼 매장(賣場)은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회적 관심은 다양하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현상도 그와 같이 여러 모습을 띠고 있는 시대적 증상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신문화 초창기 현대문학의 여명기에 이상(李箱)의 난해한 시와 소설, 그 외의 작품들이 선을 보였을 때,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으나, 그의 문학은 오늘날까지 그 진가(眞價)가 훼손되지 않고 많은 연구자의 노력을 통해 내실(內實)이 있는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작가의 눈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고 작가의 노력이 그만큼 진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상(理想)이 담긴 글이 내일의 문을 두드려 열어야만 더 큰 세계와 문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경험이나 소개하는 정도의 글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날게 해 줄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는 몇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반추상 수필을 향해 도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인간학인 수필문학이 깨어 있을 때 다른 문학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수필은 확보된 독자층이 예상보다 많아 문학의 기층(基層)을 수필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수필이 발전해야만 문학과 문화도 확장될 수 있다.'

가야 할 길은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이 따르다 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가치를 무시하고 안주하는 것은 행인(行人)의 자세가 아니다.

'반추상의 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지만, 이를 우리 모두의 과업으로 정진을 계속할 때 수필문학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반추상(半由象)이란, 반구상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새로운 길, 걷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길을 함께 걷는 것으로-미술에 견주어 추상화와 구상화의 중간 성격의 그림과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 호기심 어린 기대가 오늘의 수필의 성(城)을 이루어놓은 만큼 우리의 기대가 다시 현실을 뛰어넘을 때 수필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 보고가 된다.

이것이 예술적 작품을 낳기 위한 수필의 본령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수필 23집 출판기념회 및  
제8회 재미수필문학상, 제16회 재미수필신인상 시상식

2021년 12월 12일 용수산



\* 행사 사진은 협회 웹사이트 <행사 앨범> 게시판에 있습니다

알  
림  
니  
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며 회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미수필 23집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물류대란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책이 도착하는 즉시 타주 회원들께 우편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방은 반장, 부반장님을 통하여 회원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비 납부 상황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연외비(\$120)** / 차덕선 권조앤 이해숙 신혜원 이종운 유영주 박경 양상훈 김민정 조옥동  
전월화 이동규 이희숙(21,22) 이신우 김탁제 김수영 정찬열 공순해 박진희  
배헬레나 박연실 신순희 박소냐 지희선 조성환 김송희 곽남인 이원택  
김혜자 최미자 강신용 김영교

**이사외비(\$200)** / 유숙자 이현숙 성민희 김자넷 정조앤 김화진 김카니 최근자 조만연 김석연  
백인호 한 영 이정호 임지나 박유니스 최숙희 이리나 여준영 박신아

**출판비(\$150)** / 최근자 이희숙 김수영 이신우 양상훈 공순해 배헬레나 신혜원 김혜자 이현숙  
김석연 성민희 박연실 권조앤 박진희 한 영 신순희 차덕선 김민정 김카니  
이정호 지희선 백인호 유숙자 조성환 임지나 정조앤 이종운 김송희 김화진  
박유니스 이해숙 최숙희 곽남인 이리나 전월화 정찬열 이원택 여준영 박 경  
유영주 최미자 김영교 박신아 이동렬

**서재개설비(\$50)** / 권조앤 백인호

**업외 찬조금** / 성민희 조만연 이현숙 최근자 이신우 김탁제 김카니 김민정 김화진 김송희  
박유니스 곽남인 이원택 박신아 엄영아 (퓨전수필 찬조금)

**송년외 찬조금** / 김화진 유숙자 강신용 김석연 조모제스 노영매 임선주

\* 본 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120/ 이사회비 \$200 / 24집 출판비 \$150 / 서재 개설 \$50 / 찬조금-감사히 받습니다

\*Pay to Order / KEAA

김자넷(Janet Kim) 주소 / 22533 S. VERMONT AVE, UNIT 57. TORRANCE, CA 90502

\*회비와 관련된 문의 사항

회계담당 이메일 / janetkim821@hotmail.com



## 외원 영시

## 첫눈 오는 날

[옴페이지 게재순]

## 김수영

첫사랑에 울어 본 적 있는가  
 눈 오는 겨울 설원에 발자국 남기며  
 오로지 사랑하나에 목숨 걸었던 옛 추억  
 는개가 내리는  
 날이면 하염없이 나는 오솔길을 걷고 싶다

## 성민익

첫인 반대는 마지막  
 눈물 어리는 마지막 이별이 있듯  
 오롯한 첫 만남의 기쁨도 있었다  
 는질대는 기억과 예쁜 추억이  
 날마다 출렁이는 내 안의 우물

## 배엘레나

첫눈에 알아본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오로지 허상이라는 것  
 는 늘 말한다.  
 날마다 깨어 새롭게 살라고

## 권조앤

첫사랑  
 눈처럼 깨끗했지  
 오랜 된 앨범에  
 는  
 날 두고 떠난 그리움 쌓여 있네

## 이익숙

첫 걸음마를 떼던 내가  
 눈부시게 자랑스러웠는데  
 오히려 요즈음엔  
 는다고? 엄마의 주름살이.  
 날 걱정하는 딸아, 사랑한다!

## 김영교

첫인상이 나를 압도했다, 여학교 1학년 때다  
 눈매가 짙고 시원했다. 손위 두 오라버니와는 아주 다른  
 오독한 콧날이며 말할 때 조금 움직이는 입술이며 안색은 건강해 보였  
 는데... 철없던 그 때 실습 나온 대학 교생선생 모습  
 날이면 날마다 낙엽지는 가을에 떠오르는 첫사랑 기억!

## 양상운

첫사랑에  
 눈물겨워  
 오신님 떠나보내리니  
 는적거리는 이 몸이  
 날밤 새우구려

## 신예원

첫눈을 맞으면 언제나 가슴 설레지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같은 날씨는 아니어도  
 는개 낀 날이어도 첫눈을 맞으며 만난 님이  
 날마다 그대 곁에 있다면 아니 좋겠나

## 김송의

첫사랑의 아련한 그림자  
 눈으로 가슴으로 담아보네  
 오늘은 첫눈이 오네  
 는개비 처럼 하얀 눈가루가 하늘로부터 소복이 내려오네  
 날개 달고 떠난 첫사랑에게도 첫눈은 내리겠지요

## 이리나

첫 아이가 두 살 때  
 눈 을 처음 봤다.  
 오 는 눈을 손에 받으며  
 는 까? (뭘까?)  
 날 보며 함빡 웃었다

## 박진익

첫 단추 잘못 끼웠어도  
 눈에 안 띄는 바쁨 속에서  
 오롯이 지나가  
 느는 시간을 붙잡고  
 날을 세워 무엇하리오

봄오 영시

불마중길

**본 협회 및 타 문인협회 동정**

**<협회 외원 소식>**

성민희 회원 수필집 북 사인회 (2021.10.31)  
김수영 김영교 회원 출판기념회 및 팔순잔치 (2021.11.14)  
조성환 회원 어머니님 장례 미사 (2021.11.20)

**<협회 외원 작품집 출간 소식>**

김영교 회원 <물처럼 바람처럼>

**<문단소식 >**

가톨릭문인협회 문학상 · 신인상 시상식  
미주 펜문학 19집 출간 및 펜문학상 시상식  
재미시인협회 제32집 ‘외지’출판기념 및 시상식  
장소현 작가 이야기 모음집 <철조망 바이러스>  
김호길 시집 <지상의 커피 한잔> 세종도서 선정  
오연희 시인 해외문학상 시 부분 대상  
문인귀 시인 제5회 해외풀꽃시인상  
안규복 시인 미주 윤동주 문학상 수상

**[편집 후기]**

일년이 이렇게 후딱 가버리다니. 야속하다는 말도 섭섭하다는 말도 이제는 식상해질 만큼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빠른 세월에 많이 익숙해졌고 따라서 순응도 한다. 그래. 가거라. 갈 시간도 가고 갈 사건도 가고 갈 사람도 가고. 인생은 어차피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아닌가. 미련을 가지고 징징거릴 필요도 없고 창왕찰래(彰往察來) 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다. 새해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 새해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매우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글로서 독자에게 희망과 위로와 감동을 주는 수필가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

장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2년  
겨울호  
통권 제 76호  
발행일 2022년 1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http://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mailto: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연숙  
[sook1961@hotmail.com](mailto: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성민희  
[janelyu36@gmail.com](mailto:janelyu36@gmail.com)  
정조앤  
[jchung315@yahoo.com](mailto:jchung315@yahoo.com)

**표지 사진**



재미수필 23집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 단체 사진